



거문도 등대



하화도 꽃길



백도

365개 '바다위 보석' 섬 관광 365일 색다른 매력

바다가 아름다운 곳, 여수의 섬들이 뜨고 있다.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연 여수시는 관내 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365개에 달하는 섬과 아름다운 바다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관광 코스를 만들어 '제2의 여수 관광 시대'를 열고 있다.

◇보석 같은 365개의 섬=전남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완도에 못지 않게 여수의 섬들도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내륙관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졌던 섬 지역 관광이 개발되면서 여수 관광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여수시는 지속적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을 선포하고 테마 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 명성을 얻은 금오도 '비렁길'과 상·하화도 꽃길 조성, 거문도 역사·문화 체험지구, 남도 휴양지 조성 등의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육지와 섬을 잇는 뱃길 수단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섬 관광 대중화와 특색있는 365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금오도 '비렁길' 직행로인 백야도 항로를 개설함으로써 그동안 관광객들이 겪었던 비렁길 구간 진입 시 도보나 택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했다.

이처럼 섬과 연안을 잇는 뱃길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섬관광 체험프로그램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는 여수시가 훼손되지 않은 태고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섬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으로 관광활성화와 국제 해양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 공모사업도 활발=이 같은 섬관광 활성화 노력은 여수시가 각종 전국단위 관광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한층 활기를 띠고 있다.

안행정부의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 공모에 선정된 여수시는 개도, 금오도, 백야도, 여자도 4개 섬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모두 100억원을 투입,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개도 바지락·해삼체험장과 해안탐방로 ▲금오도·안도 시식코너와 특산물 판매장 ▲백야도 손두부와 바지락 체험장 ▲여자도 생태에 쉼터와 농·수산물 저온저장 창고 등이 조성된다.

여수 테마 섬 개발 프로젝트 박차 전국단위 공모사업 선정 등 활기 금오도 비렁길 출렁다리 이달 완공 백야도엔 별자리 테마공원 조성 관광공사 등 연계 적극 홍보 나서

최근 전남도가 지원하는 '가족의 섬 백야도 별자리 테마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된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개 지원사업에도 뽑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 백야도 백야등대 일대에 전망대, 산책로, 별자리 설명판 등 해양경관을 조망하고 쉴 수 있는 '별자리 테마공원'이 들어선다.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여자만에는 고즈넉한 풍광과 생태갯벌의 청정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여수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거문도·백도는 올해 광주·전남 대표 관광지로 선정되면서 우수한 자연 경관을 보유한 섬관광을 체험하기 위한 관광객들로



금오도 출렁다리 조감도.

붐비고 있다.

금오도 역시 명품 섬 관광의 일환으로 해안 절경을 아찔하게 경험할 수 있는 '비렁길 출렁다리'를 이달 중 완공한다.

또 여자만의 뛰어난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소라면 현천리 일원에 수변시설과 탐방로, 꽃길 길로 유명한 하화도와 장구도를 연결하는 출렁다리도 가설된다. 화정면 개도에도 생태 탐방로가 조성되며, 올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관광공사 등과의 협력도 한 몫=다도해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섬 문화유산을 랜드마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여수시는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기

관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는 여수·순천·고흥·완도·코레일 등 기관과 여행사, 해운선사, 지역학계 등이 참여하는 다도해권 광역 관광협의회를 구성해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색적인 섬 관광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되고 있다.

여수시 관광과는 남도섬 명소화 사업(거문도·백도·사도·하화도)과 무지개섬 관광벨리 행사, 주말에 만나는 섬 체험, 'Oh! Yeosu 3색 체험'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또 '여객선 운임지원 개정 조례'를 마련해 여수시민을 비롯한 지역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 의무사병 및 경찰·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여객운임 반값 할인을 시행해 관광객 유치를 돕고 있다.

여수시 강성원 관광과장은 "여수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여자만 낙조

여수 물가 비싸지 않아요

8개 품목 조사...전국 평균과 비슷

"여수시 물가 비싸지 않아요."

여수 지역 서민생활 물가가 전국 평균과 비교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9월 "지난달 13~14일 이틀간 지역 265개 업소를 대상으로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삼겹살,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등 정부 중점 관리대상인 8개 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조사해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업소 간 가격 비교를 위해 200g 환산 가격(국내산)을 책정했으며, 김밥은 1줄 가격, 나머지 품목은 1인분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냉면(6500원), 비빔밥(5800원), 칼국수(5700원), 김밥(1700원) 등 4개 품목은 전국 외식비 평균가격보다 낮았으며, 삼겹살(1만1700원)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나머지 김치찌개(6300원), 자장면(4400원), 삼계탕(1만2300원) 등 3개 품목은 평균 200~600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

시가 지난해 하반기 조사한 결과치와 비교해 자장면, 김치찌개의 평균가격은 동일하며, 삼겹살은 300원 인상됐으나 전국 평균 가격과 같은 수준이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품목별 업소 가격 비교·공개로 통해 시민들에게 평균가격, 최고·최저 가격 및 업소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지역 서민생활물가 조사 결과는 여수시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집중점검

여수시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사용 금지된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

여수시는 오는 20일까지 석면건축 자재면적이 500㎡ 이상인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석면건축 자재면적이 5000㎡ 이상 사업장 3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남도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시는 도시미화와 폐기물관리법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여부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해체·제거업자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결과제출 여부 ▲감리인 지정 등 관련 규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와 현장지도 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건축자재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의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백운산 500고지

콘도/팬션/별장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장소!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화개장터, 생계사, 화엄사, 노고단 근접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062)418-9000 H.010-4451-6686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300만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40~50%정도 대출가능
28평(26실) 9800만원	
56평(1실) 1억9600만원	

지리산노블랜드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
분양상담 061)783-6001 H. 010-2928-0202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주1회 3개월 완성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